

# “일자리 창출·지방경기 부양에 ‘올인’하라”

## 지방경제 육성으로 불황 극복을

###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기업에서 익힌 전문경영 지식과 청계천의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경제정책과 더불어 지방경제도 육성해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란다.

평화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우리 사회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뤄 모두가 골고루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 광주·전남 각계 14인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실용주의를 모토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아우성이다.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도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 각계 인사들은 집권 2년에 접어드는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평가를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성숙한 국정 운영을 바랐다. 또 경제 회복의 관건은 기업 현장에 있다며 업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계층·지역간 격차 없는 정책 추진과 탕평 인사로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포물러 원(F1) 대회의 원만한 개최, 하계U대회 광주 유치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 1년간의 시행착오, 쓴 보약 됐으면

###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

2007년 대선에서 48.2%의 역대 최고 지지율로 현 정부가 탄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온 결과라 본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4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IMF를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력을 보여왔다. 집권 2년부터는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 광주 R&D 특구 조속 실현해 달라

### 이승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현재 업종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기업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호남고속철도 전노선 조기 완공, 광주R&D특구 지정, F1대회 개최, 2015년 하계U대회 유치,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현안 추진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경기부양 효과도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 획기적인 취업대책 필요할 때

### 김혁중 광주대 총장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표방해 대다수 국민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갑작스런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내 경제를 악화시켰다. 취업난도 심화되고 있다.

대학마다 취업을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정부의 전폭적이고 획기적인 대책과 아울러 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 참여, 취업 희망자들의 눈높이 낮추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분담 등이 그것일 것이다.



## 하계 U대회 광주 유치 전폭 지원을

### 나무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올해 또 한 번 하계U대회 광주 유치를 도전했다. 지난해 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지적됐다. 광주시민이 열망하는 2015하계U대회 광주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또 체육단체에 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단체 등 난립해 있는 체육 관련 단체들을 통합, 선진국형 통합체육시스템으로 개편했으면 한다.



## 문화 창작·체험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 허달용 광주민예총 회장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관련 정책을 보면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 등 예술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 많아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책은 축소된 감이 없지 않다. 단순히 미술이나 공연을 관람하는 데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으면 한다.



## 구 정권 인사들도 포용했으면

### 허 정 광주시 의사회장

국민 통합을 위해 인재의 지역별 분배 등 지역 균형정책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또 역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 정권에 있던 인사들을 외면하지 말고 포용했으면 한다. 특히 요즘 국민 전체가 침체된 경제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고, 지역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폐업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의사들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국가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소외계층에 마음의 귀 열었으면

### 남부원 광주YMCA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은 여러 면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제 2년차에 접어드는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전심으로 여겨야 한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삶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길 바란다.

또한, 지난 1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를 거듭했다. 지금까지 국민이 엄청난 싸움과 희생을 통해 이룩해낸 민주주의의 성과를 존중하길 바란다.



## 영어교육 강화, 진지한 고민 필요

### 안톤 솔츠 조선대 독어교육과 교수

지난 1년 동안 한국 국민은 수임시키고 협상과 대우하 사업 문제 등을 일반적으로 추진하려던 이명박정부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영어교육 강화 등은 국제화시대인 지금 상황에 비해 잘된 부분도 있지만, 사교육을 활성화한 것은 아닌지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선 능력있는 외국인 유치가 필수라고 본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 걸잡기식 中企 지원대책 ‘이제 그만’

### 김향덕 여경협 광주·전남지회장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급속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될 경제위기 속에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또 지역특화 브랜드화, 고품력 여성 전문 인력 발굴, 부도 위기로 사양된 기술인재 발굴 등 세세한 것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혁신이 요구된다.



## 편향된 종교정책, 제도적 개선을

### 영 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많이 실망시켰다. 사회 각 부문에서 실책이 많아 너도나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 자체보다도 구성원 사이의 위화감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소외와 절망 속에서 슬퍼하는 이가 없어야 한다. 균형 잡힌 민주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없는 탕평인사와 정책투자만이 국민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종교적인 편향정책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계층·영역 초월 참 정치 펼쳐야

### 정병문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벌써 출범 1년을 맞았다. 당면 최대 과제인 경제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다수 국민의 기본적 권리나 삶의 문제로 직결되는 여러 현안들이 발전적으로 진보돼 가기를 염원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기대를 빚겨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선진과 부국은 결국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계층과 영역을 초월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사교육 사라지는 정책 펴 달라

###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제발 사교육이 사라지는 정책 좀 펼쳐줬으면 한다. ‘사교육비 반으로 줄이겠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란 대선 공약을 벌써 잊은 것이 아닌가 되물고 싶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일제고사를 통한 개인과 학교의 성적 공개 ▲국제중학교 설립 ▲특목고에 대한 고교 등급제 실시 ▲3월 정책 폐지와 보고서 부활 등의 교육 정책은 공교육을 말살하고, 사교육 광풍만 불고 올 것이다. 올해에는 평범한 보통 사람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대화를

### 김차령 조선대신문사 편집국장

길고 긴 1년이였다. 반대 여론에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를 보며 국민들은 힘들어 울었고, 어이없어 웃었다.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행보는 취업에만 매달리던 대학생들에게 정치 문제를 되돌아보게 했다. 청년 실업 해결은 건전한 경제 구조가 바탕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대기업, 부자 위주로 편향돼 있다. 균형을 잡았으면 한다. 또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대화 없이 일방통행 한다면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 스피치 리더십

지도자 수강생  
과정 전문 집

교육 내 위치

1. 리더십의 중요성  
2. 리더십의 종류  
3. 리더십의 역할  
4. 리더십의 특성  
5. 리더십의 구성요소  
6. 리더십의 발전과정  
7. 리더십의 효과  
8. 리더십의 장애요인  
9. 리더십의 평가  
10. 리더십의 훈련방법

비데프라자

02-515-1144

## novita

신뢰할수 있는 10년 새콤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김밥이전용! 소드 전용! 신용부담없음!

비데프라자

02-515-1144